

지역산업육성 거점기관 우뚝 ... 자타공인 전국 최고 TP



올해 개원 15주년을 맞은 광주테크노파크가 지역산업육성 거점기관으로 우뚝 섰다. 정부의 전국 테크노파크 경영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등급 획득은 물론, 4년 연속 지역산업진흥사업계획 평가 최우수등급에 오른 광주테크노파크는 '자타공인' 전국 최고의 테크노파크로 평가받고 있다.

R·D·자금지원·마케팅까지 ... 지역경제활성화 '종합센터'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의 한 가운데에 자리 잡은 광주 테크노파크(GJTP)는 IMF 구제금융 시절인 1998년 12월 광주시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 대학 등이 총 534억원을 출연해 9만9000㎡의 부지에 단계적으로 조성됐다. 현재 단지에는 130여개의 입주기업들을 포함, 5개의 기술지원센터(자동차센터·타이타늄센터·LED/LD센터·가전로봇센터·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및 7개의 기관과 1400여명의 인원이 상주하고 있다.

테크노파크는 지역 기업지원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백화점 역할을 한다. R·D부터 자금지원과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기업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 신기술 개발과 육성을 통해 스타기업을 만들어가는 기술혁신의 요

인으로, ▲광주 미래 먹거리 산업 기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지역산업의 거점기관으로서 유관기관들과 연계하는 네트워크 등 크게 4가지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동안 광주테크노파크는 창업보육과 공동연구개발지원 등 6대 목적사업은 물론 지역산업진흥사업, 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 광역권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해 기업유치·매출액 증가·고용창출 등 경제적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육성에 필요한 인프라,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서비스사업 등을 패키지 형태로 적극 지원해 광산업과 정보가전산업, 자동차산업 등이 지역 주력 산업으로 확실하게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경영평가 4년 연속 '최우수' ...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주도

광주테크노파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는 모든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기관이다. 전국 테크노파크 경영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등급 획득과 함께 기관으로서의 유일하게 4년 연속 지역산업진흥사업계획 평가 최우수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2년 연속 지역산업진흥 유공기관 표창을 받는 등 명실공히 지역산업과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최우수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무엇보다 광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랜드 디자이너'로

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 벤처창업 지원 및 육성에서부터 마케팅, 기술개발에 이르기까지 산·학·연·관을 연결하는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과 외부 수탁사업 유치 등 다양한 수익모델 창출로 지역혁신의 거점기관이자 서비스기관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3D융합 육성·치과부품사업 등 광주 미래 먹거리 창조

그 동안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산업정책기획부에서 3D융합산업육성사업(538억원), 치과산업소재부품육성사업(250억원), 중소기업융복합지원센터(3억원), 국방벤처센터 유치 등을 해냈으며 이는 향후 광주지역 미래산업발전과 경제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특히 기업지원부문에 있어 지난 3년간 166개 기업을 직접 방문해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했으며, 종합비즈니스센터를 개소, 기업의 민원을 수시로 접수하고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거나, 내부직원으로 임명한 코디네

이터가 기업을 찾아가도록 지원했다.

이에 따라 2011년 63개사였던 입주기업은 현재 100개로 늘어났고, 입주기업의 매출은 91%, 고용은 47% 증가했다. 입주기업 가운데는 광주지역 최초로 '월드클래스 300' 기업이자 지난 2월 지역 2번째로 코스닥에 상장한 ㈜오이솔루션이 배출됐다. 이와 함께 외지기업 57개사를 광주지역으로 유치, 1864명의 고용을 창출했으며 신규 투자조합(3개·1230억원 규모)을 결성, 지역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 거점기능 강화 ... 37개국 해외비즈니스센터도

지역혁신 거점으로서 광주테크노파크는 지역에 다양한 주제로 다원화돼있던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광주테크노파크 중심으로 통합(2010년 28개→2013년 44개 기관참여)하기도 했다.

신년인사회와 연구·지원기관 합동 연찬회 등을 꾸준히 주관·개최하면서 지역의 산·학·연이 정보를 상호 교류토록 지원했으며 기획 및 기업지원사업에 협력이 필요한 다양한 기관들과 사업을 기획, 조정하고 업무협약(90건)을

체결하는 등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특히 해외비즈니스센터(현재 기준 37개국 44개)를 지정·운영하며 해외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한편, 2012 로봇올림픽 아드 세계대회, 2013 ASPA 총회, 2013 OECD 스마트전문화 전략 워크숍, 2013 한-EU 포토티스 비즈니스 포럼 등 국제대회를 유치,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임동훈기자 exian@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원광신협
우리의 미래가 열립니다



광주원광신협 | 공동본점 | 227-4474 | 금호지점 | 383-4474 | 풍암지점 | 653-4474

“광주 산업발전계획이 국가 표준모델 되게 할 것”

유 동 국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광주지역 4개 기존사업을 고도화 하고 3대 신산업을 뒷받침하는 계획을 마련해 향후 10년간 광주산업을 선도하는 주춧돌을 마련하겠습니다.”

유동국(50)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광주의 새로운 산업발굴계획에 대해 “기존의 ‘지역산업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광역신도산업’과 ‘지역특화산업’ 기획을 유지하면서, 올해 시범시행되는 산업협력권사업과 2015년부터 전면 개편되는 주력산업, 협력산업, 연구산업이 유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획하겠다”며 “그동안 축적된 산업정책 기획 역량과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해 광주지역의 산업발전계획이 국가의 지역산업발전계획의 표준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6대 광주테크노파크원장으로 취임(연임)한 유 원장은 5대 원장 재임시절, 광주테크노파크를 전국 최고의 테크노파크로 업그레이드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른 지역의 테크노파크에 비해 가장 적은 인원으로 최고의 성과를 거둔 그는 내부 직원의 역량강화 및 조직운영의 효율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성과경영시스템을 정비해 선진 조직문화를 정착시킨 장본인이다.

국내 유일의 타이타늄 관련 제품개발 지원센터인 광주 테크노파크 타이타늄·특수합금부품개발지원센터의 경우, 정부의 지원사업이 종료된 유예도 끊임없는 산학연 공동 연구 등 기술개발과 사업화지원 활성화를 통해 드물게 자립화를 성공시켰다.

유 원장은 “광주테크노파크가 광주의 경제를 총괄할 수 있는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테크노파크의 외연확장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테크노파크 2단지는 광주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담보하는 첨단 융복합산업의 거점기지로, 이미 설계가



마무리중인 3D상용화지원센터와 올해부터 시작되는 치과용소재부품센터가 들어설 자리”라며 “3D상용화지원센터 건립 착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중앙기적으로는 각종 산업기회를 통해 발굴된 사업을 유치하고, 2단지 내 산업인프라를 지속적 조성해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유치·육성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정부의 지역산업 정책에 맞춰 규제 개혁 등 기업지원 서비스 기능도 한 단계 높일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유 원장은 “올해는 박근혜 정부의 지역산업육성정책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지역산업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정부가 정책 화두를 ‘일자리 창출’로 표방한 만큼, 테크노파크의 기능과 역할이 ‘지역산업 거점기관’에서 ‘지역산업 및 일자리창출 진흥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 “환경변화에 맞춰 산업정책기획 기능은 물론 기업지원에 모든 역량을 다해 대한민국의 테크노파크를 넘어 글로벌 테크노파크로 도약하는 한해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